

# 아이들의 깊은 속내 일깨워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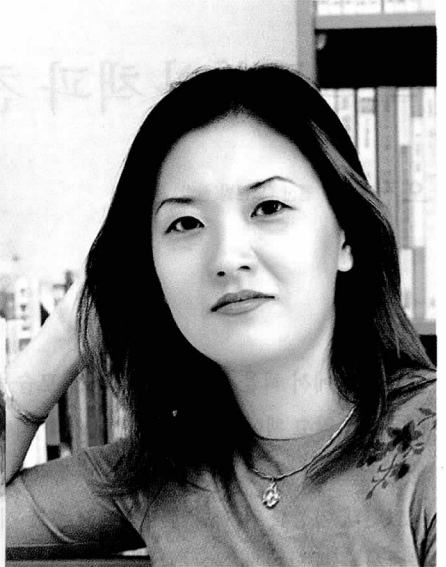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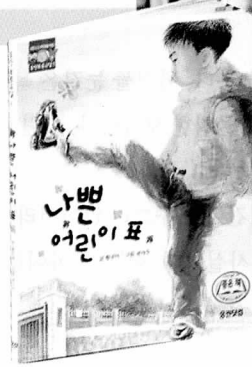
광명동화읽는어른모임 회장 송예정씨가 뽑은 황선미의 《나쁜 어린이 표》

송예정씨(33, 광명동화읽는어른모임 회장)는 요즘 그림책에 푹 빠져 산다. 아이에게 좋은 책을 골라주겠다는 생각에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자신이 좋아하는 책들을 골라 읽게 됐다. 동화읽는어른모임에도 벌써 6년째 나가고 있다. 그림책을 같이 읽던 아이는 이제 아홉살, 제 세상을 가진 나이로 훌쩍 자랐다. 송씨가 뽁뽁한 서가에서 꺼내 든 그림책은 《나쁜 어린이 표》(황선미 글·권사우 그림, 웅진닷컴)다.

“지난해 큰아이가 초등학교가 되면서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다른 엄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를 보면서 적응은 잘 할까, 친구는 잘 사귄다, 선생님께 제대로 말도 못해 오해받는 것은 아닐까 해서죠. 그때 읽은 책이에요. ‘맞아 이랬지, 이럴 텐데’ 하면서 읽은 책입니다.”

《나쁜 어린이 표》의 주인공 건우는 떠든다고, 화분을 깬다고 나쁜 어린이 표인 노란 딱지를 받는다. 하지만 모두 과정과 까닭은 살피지 않고 결과만 보는 선생님의 오해 탓이다. 건우는 나쁜 어린이 표를 받을수록 선생님이 미워져 수첩에 ‘나쁜 선생님 표’를 써나간다. “‘고자질한 애한테도 나쁜 어린이 표를 줘야죠’ (나쁜 선생님 표 하나!), ‘저도 발표 좀 시켜주세요’ (나쁜 선생님 표 둘!), ‘짜웁은 지연이가 먼저 시작했어요’ (나쁜 선생님 표 셋!).”

“아이를 학교에 처음 보내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부모와 교사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일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어린 시절을 돌아보



“아이를 학교에 처음 보내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부모와 교사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일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금세 알 수 있죠.”

면 금세 알 수 있죠. 이 책을 읽으면 아이의 생활과 생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의 말과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건우네 받은 착한 어린이 표를 받은 아이들과 나쁜 어린이 표를 받은 아이들로 편이 갈린다. 급기야 건우는 선생님이 만들어 둔 나쁜 어린이 표를 모두 버린다. 건우의 선생님은 우연히 읽게 된 건우의 수첩에서 큰 깨달음을 얻는다. 그리고 아이들과 화해하기 시작한다. 서로 속마음을 더놓고 이해의 물꼬를 튼 것이다. 교사는 편견의 벽을 허물고, 아이는 불만과 또 다른 오해를 비로소 깬다.

송씨는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림책을 읽고 싶다고 한다. 어린이책에서 얻는 감동이 더 진하고, 책을 읽을수록 아이들과 절로 눈높이를 맞추게 되기 때문이다. 깊이 간직한 소망 하나, 어린이도서관을 열어 손자들에게 알맞은 책을 자신 있게 권하는 할머니가 되는 것이다. —차정신 기자

다름에서 디자인은 행복을 느낀다

## 사람을 이해하는 디자인, 다름의 경쟁력입니다



Communication  
Design Partner Darum

dp design partner darum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쟁력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디자인,  
바로 다름의 경쟁력입니다.

시각커뮤니케이션 : 브로슈어 / 카탈로그 / 홍보물 / 패키지 / CI, BI  
출판커뮤니케이션 : 잡지 / 사서 / 사내외보 / 표지 · 본문디자인(단행본, 아동, 학습서)  
광고커뮤니케이션 : 신문광고 / 잡지광고 / 포스터 / POP / 캘린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4-65(2F) TEL 02\_325\_6260\_1 FAX 02\_325\_0944  
E-mail\_darumman@korea.com